

# 이 길은 하나님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무처럼 되어버린 그 다음부터 점점 변화가 되기 시작하여 완전히 인간의 성품이 100% 없어져서 아파도 아픈 것을 정말로 느끼지 못하고 힘들어도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 제단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이슬성신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흐르는 피의 나이는 육천 살입니다. 마귀의 영이 육천 살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 육천 년 묵은 마귀가 사람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기술적으로 꼬셔서 결국은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마귀보다 더 지능이 높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지능을 능가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구세주입니다.

구세주가 마귀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지능을 능가하는 높은 단계에 올랐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마귀 대장을 죽여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진자가 됐고 그래서 그 마귀 대장이 앉아 있었던 권좌에는 지금 이 사람의 본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태풍도 오지 못하게 하고 공산주의도 없애버렸습니다. 게다가 해마다 오던 장맛비도 막고, 해마다 흉년 들게 하고, 또 남북 전쟁도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뉘wohl 능력이 없이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가짜 구세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일 이 사람이 가짜 구세주라면 감로 이슬성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슬성신이 나온다는 것은 진짜 구세주임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전지전능자가 아니면 감로 이슬성신이 내리지 않습니다.

감로 이슬성신은 승리자의 분신입니다. 승리자의 영의 분신입니다. 이 사람의 분신이 감로 이슬성신이 되어서 내리기 때문에 그 감로 이슬성신이 인간의 털구멍으로 들어가면 인간이 전부 하나님이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곡 승리제단에 서 있다고 해서 이 역곡제단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전국 제단, 일본이나 미국 제단이 있는 곳에는 다 이 사람의 분신

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도 다 이슬성신이 내리고 있습니다.

## 마귀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입장에서 움직여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마귀 입장 즉 나라는 의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웃으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웃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도를 닦는 사람은 그 마음의 위치가 하나님에게 있느냐, 마귀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도를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경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를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종교가 있고 영생 안에 종교가 있는 것이지, 죽은 안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라는 의식이 생각하는 종교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또한 '나'라는 의식이 생각하는 학문은 학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진짜 생명의 학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종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이 나라는 마귀를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장을 해야 그게 도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이 이진자가 됐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지요."라고 하는 사람만 이긴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진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진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이긴 것이지, 마귀가 어떻게 마귀를 이끌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승리제단에서 도를 닦는 방법은 세상에서 도를 닦는 방법



구세주 조희성님

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불교에서 스님들이 묵묵 두드리는 것도 자기 자신이 도를 닦고, 자기 자신이 부처님한테 절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하는 것으로 알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 집입니다. 자기 자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라는 마귀를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장을 해야 그게 도 닦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스님들이 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의 위치부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항상 '나'라는 것을 버리고 '나'라는 것을 꺾어서 이기는 마음의 싸움을 시작해야 도를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도 닦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와 더불어 싸워서 나를 이겨야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 나무처럼 돼 버립니다. 내가 아파도 아픈 것도 모르고, 내가 슬퍼도 슬픈 것도 모르고, 좋아도 좋아하는 것도 모

르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단계의 도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겪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 닦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면 힘든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고 무릎 꿇고 앉아도 무릎 아픈 것조차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무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나무처럼 됐다고 해서 다 된 줄 알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 즉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시작입니다.

## 내가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모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의식을 의식하려야 의식할 수 없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집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관 시절 영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무처럼 되어야 구원이라고 그랬지요? 이 사람이 밀실 들어가서 3개월만에 나무처럼 됐을 때 나는 다 된 줄 알았습니까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나무처럼 되어버린 그 다음부터 점점 변화가 되기 시작하여 완전히 인간의 성품이 100% 없어졌습니까. 인간의 성품이 100% 없어지지 정말로 아파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어도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봐도 좋아지지 않고 나쁜 것을 봐도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이야 무슨 짓을 하든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참견하는 음란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형제가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견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참견하는 음란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습성이 과거를 자꾸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

를 생각하려야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3개월만에 되었습니다. 3개월만에, 그 만큼 이 사람은 집착력이 강해졌다가 한번 하고자 하면 밥잠을 자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 마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려야 생각을 할 수 없는 경지에 3개월만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역시 한참 멀었으며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던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관심의 음란죄'라고 하시기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사람은 가족을 생각하려야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 누구든지 내 몸처럼, 누구든지 내 하나님처럼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나려야 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게 하면 화가 나지요? 자존심이 나오면 '자존심 음란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존심 음란죄 또한 이겼는데 그 방법은 뭐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전부 내 상전, 내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어린 아이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내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니까 바로 이 자존심 마귀가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을 괴롭히고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을 때려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야 그게 이진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이겼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를 닦는 길입니다.

그래서 매순간 과제가 떨어지면 이기고 또 이기고 나가니까 승승장구로 이겨서 결국은 이진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그런 마음의 싸움을 해서 승승장구로 이기는 이진자가 되어야 합니다.\*

2001년 10월 16일 말씀 중에서

### 조희성님의 발자취



## 소사 신앙촌 내에 강패들이 얼씬 못하게 하다

무엇을 하든지 철두철미하게 하는 성격으로 말미암아 이진자가 되었다

소사 제1 신앙촌에서 덕소 제2 신앙촌으로 공장과 교인들이 거의 옮겨가고 영모님께서도 덕소로 가시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사 신앙촌은 기강과 질서가 무너져 말이 아니었다.

신앙하는 사람들의 마음답지 않게 술, 담배가 성행하고 밤늦게 고성방가가 난무하였다. 이 사람은 '영모님께서 피와 땀의 결정체로 이뤄 놓은 곳인데 이렇게 기강이 문란하고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통탄하는 심정을 가지고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직접 나섰다. 누구든지 신앙촌에 거주하고 싶은 자는 모두 오만제단에 다녀야 하며,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강력히 외치고 다녔다.

우선, 신앙촌에 살고 있는 강패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전도한 뒤 새벽마다 청년들을 시켜 그 강패들을 깨워 오만제단에 데리고 오게 하였다. 그 다음에는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신앙촌 거리를 지나가거나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아무리 체구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일지라도 단호하게 훈계를 하였으며,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경우엔 거의 죽을 지경으로 두들겨 패서 혼을 내주곤 하였다. 그 소문이 퍼지자 자연히 신앙촌 거리를 지나갈 때만은 술을 먹고 비틀거리거나 담배

를 물고 가는 추태가 없어져 서서히 기강이 바로 서게 되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휘어잡자 한쪽에서 불만을 가진 자들이 인근 파출소에 가서 항의를 하였다. 파출소에서는 이 사람을 불러서 이모저모 따져 물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당하게 "당신네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드리는데 왜 그러시느냐?"며 항변하였으며,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인 마을에서 술, 담배가 허용되고 고성방가와 강패들의 패싸움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한 정당함이 인정되었다. 그 후 파출소와 서로 협조하여 계속 신앙촌 마을의 평화 작업을 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예비군이 창설될 무렵, 소사신앙촌에서도 예비군을 창설해야 했다. 신앙촌 청년들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사람들이고 각자 개성이 강한 사람이 많아 이들을 통솔해 나갈 만한 인물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때 "조 중위가 아니면 통솔할 자가 없다."면서 당시 전부장과 한영순 권사 등 신앙촌 간부들이 찾아와서 예비군 창설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예비군 중대를 조직하여 거칠고 말쑥 많은 신앙촌 청년들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맹훈련을 시켜 경기



조희성님이 장교 시절 병사들과 함께한 사진(첫출 우측)

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예비군 부대로 만들어 표창도 여러 번 받은 바가 있었던 것이다.

##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이 사람은 일찍이 생활 전반에 걸쳐 빈틈없이 살고자 애썼으며, 또한 사회에 봉사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며 살아왔다.

학생 시절에는 교학을 하면서도 친구

의 학비까지 대줄 만큼 고생을 사서 하기도 했으며, 장교 시절에는 고된 군 생활에도 불구하고 야학을 운영하여 못 배운 젊은이들을 무료로 가르치기도 했다. 이 사람이 가는 곳곳에서 젊음을 불태워 희생함으로써 학교가 세워지고 전도관이 부흥되는 것이었다.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했다. 마음으로도 흐린 생각, 죄악된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던 것이다. 어쩌다 흐린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이 마귀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어버려! 왜 그따위 생각을 해!' 라고 자신을 나무라면서 머리를 시멘트벽에 들이받은 적이 수백 번이 넘었다. 그럴 때마다 뇌진탕 직전에서 한두 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곤 했다. 사실 이 사람의 집안 내력을 볼 때 대머리가 없었는데 너무 자주 머리를 벽에 들이박다 보니 머리가 부어올랐다 가리앉았다 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져 대머리가 된 것이다.

또한 평생 동안 낮잠을 자본 일이 없었다. 특별히 할 일이 없거나 여유가 있을 때면 남의 집 마당이라도 슬면서 시간을 보냈다. 낮잠을 자거나 슬데없이 잠담을 하면서 노닥거리를 앉았던 것이다. 심지어 몸이 아파도 방에 들어가 눕거나 고통을 밖으로 드러내며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몸이 아프면 오히려 '이 놈의 마귀 새끼야 잘 되었다, 너는 아파 거꾸러져라!' 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고소하게 생각하고 평소보다 더 힘든 일을 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언제 이깁나는 듯이 아픈 것이 없어져버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다.

또한 영모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을 아는 고로 내 생명보다 억만 배 더 귀중히 여겼다. 영모님께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니 항상 기도를 하라."

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고지식하면서도 한편 순진한 면이 있었던 고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 했다. 그런데 깨어 있을 땐 물론 기도를 기도해야 될지 아주 난감했다. 공리 끝에 이 사람은 잠자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서도 기도하는 꿈을 꾸게 되고 안할 받는 꿈을 꾸면서 한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기도를 한 뒤 잠자리에 들었으며,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이 있는 확신 속에서 잠을 잤다.

기도할 때에는 꼭 빠지지 않고 "하나님! 잠잘 때 호흡하는 것마저 기도하는 것으로 쳐 주시고 맥박이 뛰는 것마저도 기도도 쳐 주세요."하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렸다. 밤이나 낮이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24시간 기도로 일관된 생활을 함으로써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일관된 생활을 한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 마냥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날 결코 이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